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극적 타결

임금 삭감폭에 정리하고 문제 해결 ... 채권단 MOU 2일 앞두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 사태 등을 거치며 난항을 거듭하던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4월18일 오전 10시부터 제26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과 상여금 삭감 폭과 정리해고 등과 함께 가장 쟁점이었던 해고 통보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준수 약속서 제출 등에 전격 합의했다.

노사는 해고 통보된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약속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되 워크아웃 기간에 약속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복귀 일자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 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하며 해고기간에 무급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경영상 해고 예정자 1006명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급화 합의에 따라 임금단체협상 찬반투표 가결 시 해고 예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4월1일 잠정 합의안 가운데 워크아웃 기간에 상여금 200% 반납 부분에서 2010년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시한으로 못 박았던 2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가까스로 워크아웃 재개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9>